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이달 28일부터 재개

송고시간 2020-11-11 09:00



배영경 기자

고성·철원 구간은 내년 초 순차 재개 예정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 이달 28일부터 재개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중단했던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의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0.11.11 [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 9월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파주 구간이 이달 말 재개된다.

정부는 11일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되는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와 도라전망대, 통문, 철거 감시초소(GP)를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국관광공사 'DMZ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이나 행정안전부의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희망 방문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ASF 방역 차원에서 멧돼지 차단 울타리, 차량 및 대인 소독장비, 발판 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 점검도 마쳤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운영 규모를 기존의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두기 등 여행 중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파주 구간 운영 규모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파주 외에 고성·철원 구간도 ASF 방역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DMZ 평화의 길 고성·철원·파주 구간은 지난해 9월 19일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만5천 명이 방문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11 09: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